

“춤은 나의 삶... 고향 광주 무대 의미 깊어”

문화전당서 공연 ‘WHITE WAVE...’ 김영순 예술감독 “뉴욕서 30년 무용단 운영 힘들지만 틀 깨는 무용 이어갈 것”

“Dance is my life, 춤은 내 삶입니다.”

42년에 걸친 무용 인생, 현대무용계의 대모(大母)로 불리는 김영순(66) 무용가와 그녀가 이끄는 뉴욕 ‘WHITE WAVE 김영순 댄스 컴퍼니(이하 WHITE WAVE)’가 광주를 찾았다. 지난 2012년 광주에서 선보인 ‘Here NOW(지금 여기에)’ 4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Eternal NOW(이터널 나우)’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다.

김영순 예술감독을 지난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만났다. 그녀에게 광주는 “개인적으로 의미 깊은 곳”이다. 나고 자란 고향일 뿐 아니라, 호남예술제 등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무용가의 꿈을 키운 터밭이기도 하다. 6세 때 무용을 시작한 그녀는 광주 여고 재학 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6시 학교 강당에 나와 춤 연습을 했고, 학교 후에도 강당에 돌아와 춤을 추다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김 예술감독이 무용가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지난 7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서 9남매의 셋째 딸로 태어나 무용을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으나, 김 단장은 무용을 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유랑단이 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짐을 챙겨 놓으실 정도로 무용가가 되고 싶어했어요. 콩나물 살 돈을 아껴 절반만 사고, 남은 돈으로 내게 무용을 가르쳤죠. 그래서 스스로도 정말 지독하게 춤을 쳤어요. 춤 연습 중엔 부모님이 최고의 비평가가 돼 주기도 했구요.”

이화여대 졸업 후, 다양한 공연을 전전하며 돈을 모은 그녀는 1977년 3월 뉴욕 마사 그레이엄 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1년만 공부하겠다”며 향한 뉴욕이 그녀의 예술의 터전이 되기까지는 재정적, 정신적 고난이 뒤따랐다.

“정말 프로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희망을 갖고 떠난 길이었죠. 한국사람이 거의 없던 미국에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12시간 넘게 춤 연습에 매진하면서도, 학비를 내고 나면 돈이 없어 베이글 하나로 하루를 버티곤 했어요.”

3년여의 노력 끝에 ‘제니퍼 톨러 더 워크스’ 단원이 돼 세계 곳곳에서 활동, 커리어를 쌓은 그녀는 1988년 독자적인 무용단 ‘WHITE WAVE’를 창단하기에 이른다. ‘서양과 아시아의 전통·현대, 각 문화의 정신과 철학을 결합한다’는 포부로 시작한 단체였으나, 이를 운영하는 일은 순탄치 않았다. 일주일에 3번 밖에 리허설을 할 수 없고, 단원들에게 돈도 많이 줄 수 없었다. 무용단을 30여년 넘게 운영하는 건 그녀의 끈기와 삶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이젠 정말 그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

요. 하지만 무용에 대한 열정이 더 강했기 때문에 끝내 (무용단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해 나갔어요.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승자가 될 것이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또 단원들이 저더러 ‘피 토타며’ 안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한 단원이 신입 단원에게 ‘영순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따르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무용단이 예술가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무용단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고 생각해요.”

김 예술감독이 추구하는 예술은 ‘틀을 깨부수는’ 무용이다. “현대 무용은 새로운 표현법의 창조”라며 “안무의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고 싶다”는 그녀는 ‘안무가 스스로가 자신만의 생각을 하며 춤추야 한다’는 철학을 전하고 싶어 한다. 김 예술감독은 앞으로 춤을 통해 3가지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역사에 남을 불후의 명작을 만드는 것, 또 무용단을 더욱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국적 무용단들과 함께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이 공연하고 싶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멋지게 살다 재밌게 춤추고 간단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



“지금 즐겨라” 무용극 ‘Eternal NOW’ 6~7일 ACC 예술극장

‘WHITE WAVE 김영순 댄스 컴퍼니(이하 WHITE WAVE)’가 오는 6~7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에서 공연하는 무용극 ‘Eternal NOW(이터널 나우)’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현대무용의 창의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이다.

같은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감정으로 가득한 과거, 걱정과 불안함이 지배한 미

래와 달리 ‘지금’은 무엇이든 가능한 ‘공백’(Blank)이며, 이 순간에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2014년 미국 공연예술센터 브루클린음악아카데미(BAM)에서 초연됐으며 150년의 BAM 역사상 최초로 선보인 한국인 안무가의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터널 나우’는 마크 윌리스 등 9명의 다국적 무용수들이 인간 감정의 내면, 열정과 혼을 아름답고 섬세한 동작으

로 그려내며 그들의 몸짓은 라이브 영상, 음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음악작곡 및 연주는 이탈리아 마르코 카펠리의 어쿠스틱 트리오, 영상은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케이티 프레이와 하오 바이가 담당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들과의 공동작업물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899-55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WHITE WAVE 김영순 댄스 컴퍼니’의 ‘Eternal NOW’



‘서클레이션 메타포’ 전

9월7일까지 주영한국문화원

광주지역 미디어 작가들이 영국 런던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주영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전 ‘서클레이션 메타포(Circulation Metaphor)’를 오는 9월 7일까지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열고 있다.

문화도시광주전은 광주의 미술문화 및 작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광주시립미술관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국제전이다. 그동안 중국 북경·광저우, 독일 뮌헨, 일본 요코하마, 대만, 태국, 프랑스 파리 등에서 문화도시광주전을 개최, 각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들과 협력망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막식을 가진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적극 홍보하고 광주 작가를 국제무대에 소

개, 지속적인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교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순환과 소통을 주제로 한 ‘서클레이션 메타포’는 존재와 소멸, 생명의 문제에서 출발해 상호 간 공존과 순환에 대한 고찰을 참여 작가들 각자의 시선과 예술적 언어로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미디어 작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철학을 바탕으로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작업세계를 열어가는 작가들이다. 박상화(무등산타자-사유)의 가상정원, 박세희(상실의 풍경), 손봉채(이주민), 이정록(나비 Nabi 시리즈), 정기현(예외점 Anomaly Point +4C), 정정주(소쇄원)작가와아시아문화전당장제작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박일+김정환+배정식 작가(Try Triangle)이 참여해 대표작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기간 동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년 동안 ACC에서 진행된 장제작 활동과정과 결과를 작품 영상과 참여작가들의 인터뷰 등 100여편의 짧은 영상자료로 담은 ‘ACC 영상 아카이브’도 함께 소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



‘마음으로부터’

고마음 개인전

16일까지 리채갤러리

지진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양화가 고마음 작가 개인전이 오는 16일까지 광주시 남구 리채갤러리에서 열린다. 제4회 갤러리 리채 청년작가 공모전에 선정돼 준비한 전시로 ‘마음으로부터’를 주제로 회화 14점과 드로잉 작품을 전시 중이다. 리채 갤러리는 2019 청년 작가로 고 작가를 비롯해 하승완(서양화), 조하늘(한국화) 작가를 선정했다.

고 작가의 작품 속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대신 공간과 그 공간을 꾸며주는 소품, 의인화된 동물들이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가림막이 쳐진 ‘내부’ 공간에서 사

람들은 편안함을 느끼며 숨을 쉰다. 작품 안 공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안식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구멍’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고, 들숨과 날숨을 쉬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고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이번 개인전은 광주문화재단의 ‘2019문화예술진흥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액 150만원의 펀딩에 진행됐다. 문의 062-412-00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